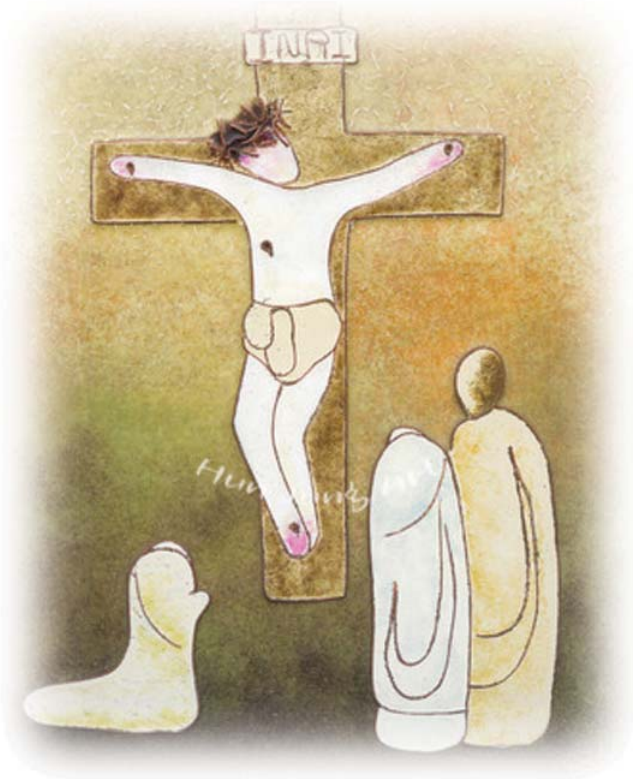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2011년 3월호



천주교마산교구 사목국

<http://mssamok.cathms.kr>

겨자씨의 비유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439번 ‘부드러운 주의 손이’ 1절을 부릅니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소서.

삶의 이야기

진행자 사진을 보고 느낀 점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겨자나무



메타세콰이어



로또 당첨



아이들의 웃음



자원봉사

하느님 말씀

진행자 어느 분이 마태오 복음 13,31-32절까지 읽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 나라는 겨자 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렸다. 겨자씨는 어떤 씨앗보다도 작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도 커져 나무가 되고 하늘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주십시오.

진행자 성경의 구절이나 단어를 3번씩 기도하듯이 외쳐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진행자 성경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마음에 와 닿은 말씀이 없을 때는

- 내가 생각하는 하늘나라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 나의 가장 빈번한 기도 주제는 무엇입니까?
- 오늘 내가 느꼈던 작은 기쁨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 본당 공동체나 구역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어떤 기쁨을 나눌 수 있을까요?

한 걸음 더 나아가기

평범한, 너무도 평범해서 주목받지 못하는 일상 속에 감추어진 하늘 나라.

길을 지나다가 예쁜 정원이 가꿔진 근사한 이층 집을 봅니다.

아! 나도 저런 집에서 살아봤으면...

길을 지나다가 아무개가 사법고시에 합격했다고 축하하는

현수막을 봅니다.

아! 내 자식도 저리 좀 잘나봤으면...

길을 지나다가 로또 가게 앞에 당첨 번호가 걸려 있는 것을 봅니다.

아! 나도 저런 행운의 주인공이 되어봤으면...

그러나,

간신히 월세를 맞추고 다음 달 월세를 걱정해야하는
어느 반 지하에서 흘러나오는 아이들의 재잘거림 속에...
취업을 위해 오늘도 신발끈을 다시 매며
길을 나서는 우리 아이의 멧찍은 미숙 속에...
내 작은 칭찬에도 흐르는 땀을 닦아 내리는
내 소중한 동료의 환한 웃음 속에
하느님께서는 행복이라는 하늘 나라를 심어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행복이 녹록지 않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고
인생이라는 작은 나무에 아내라는, 남편이라는, 동료라는, 자식이라는
또 다른 생명들이 깃들일 만큼 놀라운 생명력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는 그 작은 겨자씨가 자라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큰 나무만 부러워하고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타토의

소공동체 모임에서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정함시다.
(실천사항을 정한 후 본당 공지사항과 기타토의를 한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함시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성가 439번 ‘부드러운 주의 손이’ 2절을 부름시다.



궁금
했어요

‘십자가의 길’은 십사처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만 바쳐야 합니까?

‘십자가의 길’은 갈바리아 산으로 오르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여정을 따라 걷는 묵상의 기도입니다. 14군데로 구성된 ‘고통의 길’인 까닭에 한 단락씩 나누어 묵상되어질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걸고 계신 사랑의 현장이며 실제 상황임을 마음에 새기는 기도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가쁜 숨소리를 느끼고 고통의 신음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바치는 것이 옳습니다. 사모하는 마음 없이 기도문을 읽으며 지나치기에는 밤새워 고문 당하고 지쳐 계신 예수님 고통 자욱이 너무나 깊고 선명한 곳이니깐요. 부디,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경배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교회는 예루살렘의 ‘고통의 길’을 순례할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하여 성당이나 경당, 그리고 순례자들의 숙소 안이나 순례지의 바깥에도 마련하고 교회 묘지 등에 설치합니다. 하지만 병자, 여행자, 죄수 등 십사처가 설치된 장소에서 기도를 바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를 바치고 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축복된 십자가의 사용을 허용하지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치는 사람들에게는 바칠 때마다 대사가 주어지는 까닭에 교회는 은혜와 대사를 위해서 십사처가 설치된 장소에서 바칠 것을 권합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의 길’을 통해 새롭게 부활하시기 바랍니다.



수산본당 대성구역에 부는 따뜻한 봄바람

사목국에서 소공동체와 관련된 연수를 마련하고, 모임지도 발행하고 있지만 각 본당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임이 참으로 궁급하였습니다. 서면으로만 받아보는 소식들에 아쉬움을 느껴 3월 호부터는 소공동체 모임을 직접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수산본당 차례가 되어 연락을 드렸더니 마침 1월 21일에 첫 구역미사가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지요. 첫 시작이라 아무런 준비된 것도 없고, 소개할 만한 것이 없다시는 구역장님과 본당 신부님께 양해를 구하고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대성구역 미사〉

미사가 봉헌된 곳은 수산본당 대성구역 이유열 바오로 형제님 댁. 명례성지를 조금 못 간 곳에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내려서자 이런 곳에 사람 사는 집이 있을까 싶게 온 사방이 비닐하우스 단지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농촌 지역이라 집들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소공동체 모임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말을 실감케 하였지요.

바오로 형제님 댁에 들어서자 첫 구역미사인 만큼 대성구역 반원들 외에도 본당 사목위원님들께서도 함께 하셔서 넓은 거실이 사람들로 꽉 찼습니다. 임효진 신부님(야고보, 수산본당 주임)께서는 강론을 통해 “오늘 대성구역에서 첫 구역미사를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본당이 도시 본당들처럼 소공동체 모임을 진행해 나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 미사가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일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

어 있는 그대로의 신앙과 삶을 하느님께 맡겨나가는 수산본당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라며 구역미사의 취지와 앞으로의 본당 소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말씀해주셨습니다.

미사 후 간단한 다과를 나누며 구역장님으로 대성구역에서 가장 젊으신 조말순 미리암 자매님께서 선출되셨고, “구성원 대부분이 노년층이라 모이는 것도 힘들지만, 복음나누기 7단계 자체를 끝까지 진행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단계까지 해 나가면서 차츰 복음나누기도 익혀 나가고, 항상 배우는 자세로 모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바오로 형제님 댁을 나서는 길, 노년층이 많고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시다 보니 모임 자체가 잘 되지 않자 수산 1,2,3구역, 명례, 대성, 초동의 여섯 개로 구역을 좀 더 세분화 시켰다는 설명을 구역장을 13년째 맡아 오고 계신 조 막달레나 자매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었습니다.

늦은 겨울 저녁, 마산으로 오는 길이 좁지만은 않았던 것은 가장 따뜻한 자리를 선풍 내어주시고, 손님을 그냥 보내어서는 안 된다시며 싸주시던 떡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공동체 모임을 새롭게 이끌어 나가시려는 본당 신부님과 사목위원들 그리고 대성구역 구성원들에게서 푸른 봄 잎사귀 같은 희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수산본당 구역미사는 앞으로 매달 1~2회 각 구역을 돌며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려는 수산본당 소공동체에 부는 따뜻한 봄바람에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길 기도해 봅니다. -사목국



〈대성구역 반원들〉

복음나누기 7단계

시작성가

출석확인 및 인사 나누기

1단계 주님을 초대한다.

“한두 분이 기도로 예수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2단계 복음(말씀)을 읽는다.

“... 복음 ...장을 펴 주십시오.”

“어느 분이 ...절부터 ...까지 읽어 주십시오.”

“다른 분이 본문을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3단계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외친다.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큰소리로,
세 번 선포해 주십시오.”

“어느 분이 본문을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4단계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다.

“3분 동안 침묵하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5단계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말씀을 나눈다.

“순서 없이 자유롭게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나눕시다.”

6단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눈다.

“지난 주에 공동체(각자)가 정했던 실천사항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나누어 봅시다.”

“우리가 이번 주(이번 달)에 해야 할 활동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무엇을 할 것입니까? 누가 할 것입니까? 언제 할 것입니까?)

7단계 자유롭게 기도한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소공동체 기도 및 영광송